

# 海外業界動向

## '92년의 세계 반도체시장

미국 Dataquest誌는 최근, '92년의 세계반도체 시장예측(수정치)를 발표, 전년대비 5.4%증인 629억불에 달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지역별 성장률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Asia·태평양지역이 21.6%로 가장 많고, 작년말, 시장의 회복기조에 있는 북미가 15.1%, 구주 7.2%로 각각 성장하여, 곧 일본은 9.4%로 하락할 것으로 同社는 예측하고 있다.

Asia·태평양 諸國에서 성장률이 큰 것은 퍼스컴, 워크스테이션(WS) 개인용 정보기기의 생산거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배경에는, 이 나라에서는 소비자가 현산의 기기를 구입하는 경향이 강력하다는 원인도 있다.

또한 북미에서는 퍼스컴의 고급기인 CPU가 Intel의 「386」에서 상위기인 「486」으로, 통신시스템과 WS가 Grade up하고 있는 등 이행기에 있다는 것이 성장률의 요인이라는 것이 Dataquest의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4M DRAM과 「486」의 수요가 금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의 하락은 전산기와 전자공업의 부진을 반영한 것이다.

## 미·일·유럽의 EDI 표준화 실현으로

미국, 일본, 유럽의 전자업계 EDI관련 3개 단체는, 각자 개발중인 EDIFACT 이용 가이드(서브Set) 및 바코드 시스템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하여, 상호 합일점을 얻기 위하여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일·유럽 전자업계 EDI 3단체 연대회의」를 개최

할 계획이다.

이것에 의하여, 금후의 전자업계에서 국제EDI와 바코드의 표준화 및 그 이용, 실시를 원활 화함과 함께 상호이해와 교류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同회의의 참가는 유럽의 「EDIFICE」, 미국의 「EIDX」 그리고 일본의 「EIAJ·EDI 추진 센터」이다.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의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발주·물품관리관계

① 국련 메시지에 관하여, 어떤 연도에 발행된 것을 사용할지 현재 사용중인 「90, 一版」의 실효시기 및 Change Request(국련에의 변경요구)의 적용 가부 등의 관련을 고려하여 검토, 결정한다.

② 同메시지의 취급에 대하여 규칙·원칙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하여 검토·결정한다.

③ 各단체의 현재 실시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상위점을 확실히 한다.

④ 3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발주 메시지의 원안을 검토·작성한다. 이 이후의 단체는, 이것을 가지고 승인할 수 있는 것인가를 검토한다.

### 2. 바코드 관계

① EDIFICE가 작성한 바코드 표준화 계획에 관하여 종전부터 내용검토의 의뢰가 있었으므로, 이 세부설명을 받은 후 일본측에 코멘트를 제출한다.

② EIAJ·EDI 바코드 라벨 시스템 표준에 관한 검토경과·내용을 설명, 이해를 얻는다.

## 미국의 컴퓨터 업계 동향

美 퍼스컴 시장의 가격경쟁 격화로, 대수의 신장에 비교하여, 이익이 상승하지 않는 퍼스

컴 메이커 각사에 대하여, 호조를 보인 것은 주변기기 메이커이다. 퍼스컴이 보급되면 프린터, 소프트웨어, 디스크, 모니터 등의 수요는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집중되고 있는 것은 프린터이다. 美 조사회사인 Market Intelligence에 의하면, 작년의 美 프린터 시장 매출고는 101억 460만불로, 금년은 10.7%로 신장하여 금년은 112억 2,900만불 시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연평균 9%에서 10%의 비율로 성장, '95년에는 149억 1,820만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이 신장이 기대되는 것은 레이저 프린터이다. 현재,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강세가 발휘되고 있는 것은 Hewlett Packard (HP) 로써, 美 조사회사 Info Corp에 의하면 HP는 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HP의 독무대가 되고 있는 이 시장에 다른 메이커도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다. 美 컴퓨터 메이커인 Compaq은 6월말에 새로이 주변기기 사업부를 설립, 프린터의 제조판매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HP의 프린터의 엔진은 캐논이 공급하고 있는데, 美 프린터 엔진의 대부분은 Canon산이다. 그 Canon 독점상태에 중단을 요구하는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브라자는 同社의 프린터 엔진은 자사 개발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横河 Hewlett Packard (YHP)는 富士通의 엔진을 채용한 제품을 일본에서 발표하고 있다.

또한 레이저 프린터도 가격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저가격 기종이 차례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 브라자의 「HL-10V」沖 Data의 「830」 삼성전자의 「Final e 8,000」 등은, 모두 2,000불을 하회하고 있다.

레이저 프린터와 함께 신장이 기대되고 있는 것은 잉크 제트 프린터이다. 美 조사회사인 BIS Strategic에 의하면, '91년의 흑백 잉크 제트의 매출고 대수는, 작년의 64만 6,600대에서 41%로 급성장을 거두어, 110만대를 기록하였다.

컬러도 '90년의 7만 1,400만대에서 23% 신장하여 9만 2,700대를 달성하였다. 레이저에 비교하여, 잉크제트는 저가격이 매력이다.

이미 500불의 기종도 스타 정밀에서 등장, 중소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수요증이 기대되고 있다.

## 미 컴퓨터업계, 2/4분기 결산

美 컴퓨터 업계가 최근 발표한 2/4분기 결산에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작년에 28억불의 적자를 내고 전후 최초의 수익감소를 기록한 IBM은 제2/4분기 7억 1,000억불의 순이익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467%의 수익을 기록하였다. 1~6월 누계에서, 작년동기의 적자액 15억 8,000만불에서 일전하여 13억불의 순이익을 확보하였다.

IBM의 수익증가는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신장에 의한 것이다. 同社는 작년말, 分社化를 발표했는데, 「시장별로 초점을 맞추어, 인원삭감을 속행하면서, 지출관리도 계속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한다.

Unysis도 2/4분기 매출에서 전년동기의 22억불에서 20억 8,800만불로 감소했는데, 수익에서는 同 13억불 정도의 적자에서 1억불의 흑자로 전환하였다. 상반기에도 수입은 감소했지만, 손익에서는 1억 5,000만불의 이익을 냈다. 同社도 인원삭감과 경비절감이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메인 프레임에서는 DEC가 변함없이 고전하고 있다. 同社에 있어서 제2/4분기의 39억불의 매출실적은 전년동기 15가 삭감된 것이었다. 또한 손익에서도 18억 5,000만불의 적자를 나타내 '91/92년 전분기의 적자액이 27억 7,000만불을 나타내 작년의 적자액인 6억 1,700만불에 적자폭을 확대하였다.

퍼스컴 메이커에서는 Apple과 Compaq에 수익 개선의 징조가 보인다.

Apple은 작년의 4~6월기(同社의 제3/4분기)

에, 5,300만불의 적자를 냈는데, 금년의 동기는 1억 3,000만불의 흑자로 전환하였다. 제1/4~제3/4분기의 매출에서 11% 증가한 53억불, 이익에서 189%인 4억 3,000만불로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

작년에 창업사장이 사임한 Compaq에서도 제2/4분기는 일전하여 호조를 보였다. 저가격기를 강화한 것이 주효하여 수익증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상반기 매출에서는 16억 1,000만불로 5%가 감소하였다. 순이익도 7,400만불로 45%가 감소되었다.

미국 주요컴퓨터업체의 2/4분기 실적  
[단위 : 100만불]

	매출	전년동기대비(%)	이익액	전년동기대비(%)
I B M	16,224	9.9	714	467
D E C	3,905	-1.0	▼1,855	(▼871) (1)
Unysis	2,088	-5.2	105	(▼1,299) (1)
Amdhal	693	53.7	17	280
Tandum	503	5	17	238
Apple	1,740	13.8	131	(▼53) (1)
Compaq	826	15.2	29	43
Research	266	24.9	18	▼8
Data General	259	-14	▼12	36 (2)

▼적자액 (1) 적자액 (2) 흑자액

### 금년, 미국 반도체 시장 호조

경기둔화에 의한 침체기를 탈피하여, 美반도체 업계가 상승세에 있다. 퍼스컴의 가격경쟁으로, 퍼스컴 업계의 이익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출하대수는 확실하게 신장하고 있어, 반도체 수요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데이터퀘스트는 북미 반도체 시장은 금년에 15.1%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전망치는 세계반도체 시장통계(WSTS)가 5월에 발표한 10.6%를 상회하였다. 데이터퀘스트, WSTS가 세계시장 전체의 성장률을 각각 5.4%, 6.8%라고 예측한 것을 보아도 금년의 美반도체시장은 호조를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美 반도체시황을 나타내는 B/B Ratio(수주대출하비)는 작년 11월보다 8개월 연속하여 1.0%를 상회하고 있어, 수주가 출하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6월의 B/B Ratio는 1.4%로 14개월만에 고수준을 나타냈다.

미국의 주요반도체 업체의 실적도 호조를 보였다. 최근 제2/4분기(4월~6월)의 업적이 차례 차례 발표되었는데, Intel은 매출 13억 2,000만불로 과거최고를 기록하였다. Motorola도 전년대비 21% 증가한 10억 8,000만불, AMD도 18% 증가한 3억 5,000만불을 달성하였다. '92년도('91년 6월~'92년 5월) 업적을 최근 발표한 NS, 제4/4분기 매출액 4억 9,150만불은 과거 5년 사이에 최고기록을 보여, 전년의 적자로부터 회복되고 있다. 또한 NS를 비롯하여 Intel, Micron Technology는 신규투자 계획을 확실히 하여, 현재까지의 투자삭감의 자세에서 점차 공세로 변화되고 있다.

미국의格的 메기는 기관인 Standard & Pears(S&P)는, 금후 1년부터 1년반, 반도체 각사의 株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 근거로써 B/B Ratio의 호조, 美반도체 업계의 두자리 성장, 수요증가에 의한 매출증가, 가격하락과 코스트 삭감 등 압박요인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 미국 GI사, 미국 최초의 위성경유 디지털HDTV

General Instrument(GI)사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SBCA Satellite 전시장에서, 미국에서는 최초의 위성경유에 의한 디지털 HDTV의 방송실험을 실시하였다.

HD 비디오 녹화프로그램은, 서해안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GI 비디오 사이버 시설의 디지털사이퍼 HDTV 엔코더로, 디지털화, 신호 압축화되어, 휴즈 Kμ밴드 위성 SBS-6을 경유하여, 동해안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3ft의 접시 안테나로 수신하였다.

복합화되어서 대화면 리어 프로젝션TV(日立製)에 고정밀 화상을 약30분간 실연하였는데, 두개의 프로그램을 전송하였다. 3회 회상의 일부가 종방향에 단시간 Sinda社에 흔들이는 신호장해를 보인것 이외는 영상, 음성과 함께 안정된 재현력을 나타냈다.

GI는 '90년 6월에 세계에서 최초로 All Digital HDTV 시스템을 발표後, 금년에 접어들어 디지털 사이퍼 방식으로, 지상파 및 케이블 전송(3월), 라이브방송(4월), 東芝와 공동으로 최초의 가정용 디지털 HDVTR실연(4월), 쌍방향 케이블전송(5월)을 모두 성공시켜서, 수위의 위성방송에 의하여 「디지사이퍼는 중요한 TV 신호배신을, 모두 실현하게 되었다」고 표명하였다.

### 미국, 보통용지 FAX 수요 증가

미국에서 보통용지 FAX(PPF)의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 Dataquest에 의하면, 작년의 PPF 출하대수 26만대가 '96년에는 142만대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업계도 종전의 감열리형에서 PPF에 힘을 기울이는 동향이 눈에 띄고 있다.

美 PPF시장에서 선두에 선 것은 캐논이다. 작년말, 열전사방식의 PPF「FAXPHONE80」을 1,695불에 판매개시한데 이어서 9월에는 버블제트형의 「B70」을 1,000불에 발매 예정하고 있다. 他社의 PPF가 1,200불 내지 그 이상의 가격인데 대하여 「B70」은 1,000불의 저가격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화제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OA딜러인 오피스 맥스社에서는 「감열형과 비교하여 PPF의 판매대수는 아직 적지만, 소매가격이 1,000불이 되면 PPF 붐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B70」은, Canon이 특허를 갖는 그레이 64단계 색조의 초고화질 이미지 프로세싱이 특징이다.

村田機械(무라텍)은 열전사형의 「F-70」을 판

매하고 있다. 시어즈가 F-70을 전국 10개소의 사무기 판매 체인점(Office Center)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업체 희망소매가격 2,695불에 대하여, 시어즈에서는 1,499불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한, 오피스 센터 이외에서의 판매는 보류한다고 한다. 村田에는 이것 이외에 LED방식의 「F-75」(3,495불)이 있다.

Canon과, 村田기계이외에도 PPF를 강화하는 메이커가 많다. Sharp는 레이저형의 「UX-2100」(업체 희망소매가격 2,999불) Panasonic(松下電器)은 잉크제트식의 「PD-4200」(2,495불)과 레이저식의 「KV-F5000」(2,999불)을 각각 판매중이다.

### '92년 일본의 민간기업 설비투자

일본 경제기획청이 최근 발표한 범민기업 동향조사(6월 1일에 실시)에 의하면, 금년의 민간기업 설비투자 계획은 1차산업에서 51조 3,809억엔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서 同조사를 시작한 '81년 이후 최저를 나타냈다.

특히, 제조업의 설비투자계획은 비철금속과 전기기계, 섬유 등을 중심으로 감소를 예상하는 곳이 많으므로 전년대비 8.3% 감소로 '87년 이후 작년 수준 이하를 나타냈다. 반면, 비제조업은 도·소매, 운수·통신 등 강세의 업종이 많기 때문에 5.7%의 신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 마다 실시, 이번에는 4,386社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제조업의 재고수준인 BSI(「과잉」과 「부족」의 비율의 차)는, 완성품은 3월말, 6월말(두가지 모두 월말 추정)모두 27로 기업의 재고 과잉감이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18개업종 중 종이·필프, 고무·피혁, 조선 등 9개업종에서 과잉감이 강력해지고 있어, 재고조정이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살표볼 수가 있다.

원재료 재고는 3월말의 13에서 6월말에는 14가 되어, 과잉감이 강력해지고 있다.

국내경기에 관한 판단지표(BSI=「상승」이라고 답변한 기업과 「하락」이라고 답변한 기업의 비율의 차)는, 4~6월이 마이너스 47, 9월은 마이너스 33으로 예상, 10~12월은 5와 플러스로 전환하였으므로, 바로 현재는 경계감이 강력하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경상이익 전망의 BSI(「증가」와 「감소」의 비율의 차)도 4~6월은 마이너스 9, 7~9월은 마이너스 4로 감소를 예측하는 기업도 감소하여, 10~12월은 플러스 6과 연말의 업적회복에 기대를 거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 일본의 일부 가전제품, 현지법인으로 부터의 역수입 급증

일본의 컬러TV, VTR의 수입은 호조로 신장하고 있는데, 일본 가전업계의 Asia 현지법인 생산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6월 수입실적에서 컬러TV의 경우 전체수입의 90%가 아시아 현지법인 제품으로 되고 있다.

이 경향은 금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배경에는 업계의 생산확대, 수입확대 대책을 들 수 있다.

최근 확실히 밝혀진 1~6월의 수입실적(대장성무역통계)에서는, 컬러TV는 101만 5,000대로 전년동기대비 135% VTR은 23만 4,000대로 158%로 커다란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컬러TV의 6월 수입실적은 20만 3,000대로, 전년동기대비 42% 신장하였다.

1~6월간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20만 9,000대 전년대비 178%, 작년에는 불과 6,000여대이었던 태국으로부터는 26배인 17만 5,000대의 수입을 보였다. 모두 일본업계의 해외공장으로부터의 수입확대에 의한 것이다.

VTR도 말레이시아 등 Asia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6월의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은 2만 4,000대로 전년동기대비 850배

를 나타냈다.

1~6월에도 12만 7,000대로 전년동기대비 133배를 나타냈다. VTR은 日立 등이 말레이시아 공장으로부터 수입을 본격화시키고 있어 내년에는 JVC에서도 Hi-Fi VTR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할 계획이다. 컬러TV, VTR의 보급품의 해외생산 이전과 동시에, 일본시장에 수입하는 케이스가 더욱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의 '91년도 컴퓨터 납입실적

통산성은 최근 범용컴퓨터에서 퍼스컴까지 폭넓은 품목에 걸친 '91년의 「전자계산기 납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1년의 전자계산기 납입상황은 총대수 272만대, 금액은 4조 2,148억엔을 나타냈다. 품목별(금액베이스)로는, 범용컴퓨터 51.0%, 퍼스널 컴퓨터 21.8%, 오피스 컴퓨터·분산처리 프로세서 14.8%, 워크스테이션 8.7%, 미니컴퓨터 3.1%의 순서를 나타냈다.

형별로는 금액베이스에서는 대형A(5억원이상) 34.5%, 초소형B(300만엔미만)이 많고, 또한 대수베이스에서는 초소형B가 94.7%로 압도적이었다.

부문별 납입상황(퍼스컴을 제외)은 다음과 같다.

범용컴퓨터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3,876억엔 18.0%에 대하여 민간부문을 1조 5,575억엔 72.5%였다. 수출분은 1,622억 7.6%였다.

미니컴퓨터, 오피스 컴퓨터, 분산처리 프로세서, 워크스테이션을 합치면, 공공부문은 731억 6.5%에 머물렀는데 민간부문은 8,330억엔 74.1%를 나타냈다. 수출분은 313억엔 1.2%였다.

범용컴퓨터의 납입실적은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수 베이스에서는 도·소매업 750대, 전기·기계·기구·제조업 434대, 정보서비스업 425대 등을 나타냈다. 또한 금액베이스에서는 금융업 2,987억엔, 전기기계기구제조업 2,214억엔 등이

많다.

### 소니와 TI, 영상처리용 반도체소자 공동개발 응용

Sony는 최근,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Texas Instruments(TI)는 고선명TV(HDTV)와 비디오에 응용할 수 있는 영상처리용 반도체소자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대상은 Serial Video Processor(SVP), 초소형 컴퓨터(마이크로 컴퓨터)의 일종으로, 영상기기에 탑재하면 영상의 색조, 농도를 조정하여, 선명한 영상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SVP는 TI가 제작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하였다. 일본의 가전메이커 등에 샘플 출하하여, 벌써 일부의 TV 등에 사용되고 있다. SVP를 사용하면, 증전에 영상처리에 필요했던 10여개의 집적회로(IP)를 한개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음향·영상(AV)기기 등의 소형화와 저가격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TI는 AV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제품개발력을 가지며, 이전부터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관계가 깊은 Sony와 대응, SVP의 대응범위를 확대시킬 생각이다.

### EC의 OMI·조립제어기술 추진 현황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인 Advanced Risk Machines는 EC가 추진하고 있는 「ESPRIT III」(구주정보기술개발전략) 산하의 Open Microsystems Initiative(OMI) 속에 제어기술 디프리 엠베디드 콘트롤(OMI/DE) 프로젝트에 참가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표명하였다.

OMI는 작년에 시작된 전세계 차원의 어플리케이션을 지향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스템의 설계 계획이다. 또한 디프리 엠베디드 프로세서 시스템은 프로세서, 메모리, 입출

력 디바이스를 하나에 내장시킨 시스템이다.

ARM은 영국 반도체 메이커인 GEC Plessey Semiconductors(GPS), 이탈리아의 전자악기 메이커인 IRIS, Philips의 독일 자회사이며 통신기 메이커인 Philips Communication Industries(PKI)와 공동으로, ARM의 RISC(축소명령 Set형 컴퓨터) 프로세서가, Macro 셀로써 사용되는 고집적회로 시스템의 상업화 선양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기간 3년의 OMI/DE 프로젝트는 통신, 가정용 오락기기 분야의 두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그 연구에 기인한 DE 콘트롤의 사양을 결정할 계획이다. 통신에서는 PKI가 TV회의 시스템의 설계仕様을, 가정용오락에서는 IRIS가 전자오르겐에 필요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콘트롤의 사양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이 Project에는 이외에도 독일의 하노버대학, 영국 맨체스터대학, VLSI Technology Europe社가 참가하고 있다.

### Philips, 유럽의 VTR시장 공략

Philips는 금년 봄, 유럽의 VTR 생산거점을 빈으로 일원화했는데, 최근 同공장에서 세계최고속의 VTR을 개발하여 유럽 VTR시장에서 재공략을 시도하고 있다.

Philips는 과거 빈을 중심으로 구주의 VTR사업을 전개했는데, 금년 3월, 32% 자본참가하고 있는 Grundig의 VTR사업을 뉴른베르그로부터 빈으로 이전하여, Philips Group의 VTR사업 결속 강화를 도모하였다.

Philips는 '87년에 설립한 체코의 VTR합작기업 아벡스가 6월에 해산했기 때문에, 공급능력이 저하한 것도 빈에서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이유이다.

Philips와 Grundig의 VTR 개발 생산총합에서는, Grundig의 VTR본체, 메가테크, 헤드의 개발과 생산부대를 빈으로 이전하여, 同地에서

Philips와 공동생산, 판매는 양사의 브랜드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룹의 인원과 개발비의 중복을 회피시키는 목적도 있다. 양사총합의 성과로써, Philips는 최근, 세계최고속의 가정용VTR을 개발, 9월부터 구주에서 발매한다. 이 신형VTR은 「터브 드라이브」로 불리는 독자적인 메가테크를 탑재, 신속한 재생과 양질의 화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同社の 설명에 의하면, 터브 드라이브 탑재기는 화상정지의 위치에서 30초, Eject Postion에서는, 40초에 재생 스타트가 가능하다고 한다.

Philips는, 터브 드라이브를 연간 250만개 생산, 4기종에 탑재하여 9월에 발매할 계획이다.

同드라이브를 탑재한 기종의 가격은 998마르크(1마르크는 약 80원)~1,599마르크를 예정하고 있다.

Philips는 금년의 VTR수요를 세계에서 4,000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Grunding 브랜드를 합쳐서 금년 '500~600만대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10%強의 점유율을 취득할 생각이다.

또한 Philips는 빈이외에, 일본 Victor와 합작한 말레이시아, 브라질, 헝가리에서 VTR을 생산하고 있다.

### 독일 퍼스컴 업계, 486기종의 가격인하 동향

독일의 퍼스컴시장에서도 중소형 연산장치(CPU)에 「i486」을 사용한 기종의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였는데, 이에 따라 시장전체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 시장조사회사에 의하면, 최근 i486 기종의 하락에 따라, 업무용 퍼스컴의 분야에서는 i386 기종으로부터의 교환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유통경로에도 변화가 생겨, 지금 현재 가장 신장되고 있는 것은 직판방식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영국과 프랑스에 비교하면 독일

에서는, 아직 직판방식의 침투가 뒤떨어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써 同社は, 독일의 유저가 가격보다도 품질과 서비스에 구애받는 경향이 강력하므로, 과거의 거래관계와 딜러의 평판, 이미지를 중시하는 결과, 서플라이어와 세대교체가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독일 시멘스, 통신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개발 검토

시멘스가 통신분야의 연구개발(R&D)에서 경쟁업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다.

R&D의 인적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유럽통신기업계의 생존을 도모할 목표도 있다.

시멘스의 통신기 사업은 공중통신망과 사설통신망을 통합하여, 연간 164억마르크의 규모로 會社 매출의 23%를 차지하는 기간부문이다.

시멘스는 '90년대 후반에 걸쳐서 ATM(비동기전송 Mode) 교환기와 광대역 디지털통신 등 차세대 통신서비스용 同장치에서는 커다란 R&D 비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분야에서 공동개발에 참가하는 업체 社社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멘스에 의하면, 美ATT, 加Northern Tclecom, 스웨덴의 Ericsson이 同社の 제안을 환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멘스의 간부는 일본 업체에 동일한 창가를 구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타업체 참가계획의 제1탄으로써 시멘스는, GSM(汎歐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의 차세대기 개발에 참가하는 메이커 조사는 착수하였다. GSM에서 Simens는 벌써 Philips와 고정국의 생산에서 협력관계에 있는데, GSM 서비스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Siemens는 멀지 않아, GSM으로 Philips와의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아갈 계획인데, GSM의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다른 업체와의 제휴에 들어갈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